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1호 【루계 제22983호】 주체99 (2010) 년 1월 31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개 건 된 향 산 호 텔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제강동지, 리재일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개건공사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건설부문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향산호텔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군부대장이 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한 보고를 드리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도처에서는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창조물들이 련일 솟아올라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주체조선의 국보인 국제친선전람관과 독특한 자연경관을 가지고있는 세계적명산 묘향산에 자리잡고있는 향산호텔이 새롭게 개건됨으로써 호텔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각이한 크기와 형태의 침실들과 식당, 연회장, 수영장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향산호텔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4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요참관지의 하나인 묘향산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최상급의 호텔이 일떠선 결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다 훌륭한 숙식 및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면홀, 회전식당, 침실들, 연회장, 오락장, 극장 등 호텔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축형식과 내부구조는 물론 장식과 비품의 색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호텔을 새 세기의 미감에 맞게 최상의 수준으로 개건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개건된 향산호텔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을뿐아니라 봉사기지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호텔을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나의 큰 호텔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개건공사를 4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끝낸것은 기적의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놀라운 성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대고조의 총진군에서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우리 군대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불가능을 모르는 이런 위력한 대부대의 믿음직한 뒤받침이 있기에 강성대국승리의 축포가 터져오를 영광의 시각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되고 손님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는 온갖 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향산호텔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1등급의 봉사기지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숲을 이루며 일떠서고있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자랑찬 모습을 펼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미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특색있는 건축형식을 적극 탐구하고 만들어내여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향산호텔은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이 구현되여있는 력사적인 건물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중한 유산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은 인민의 복무자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헌신분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향유물인 향산호텔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호텔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호텔의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에게 세계적인 또 하나의 훌륭한 호텔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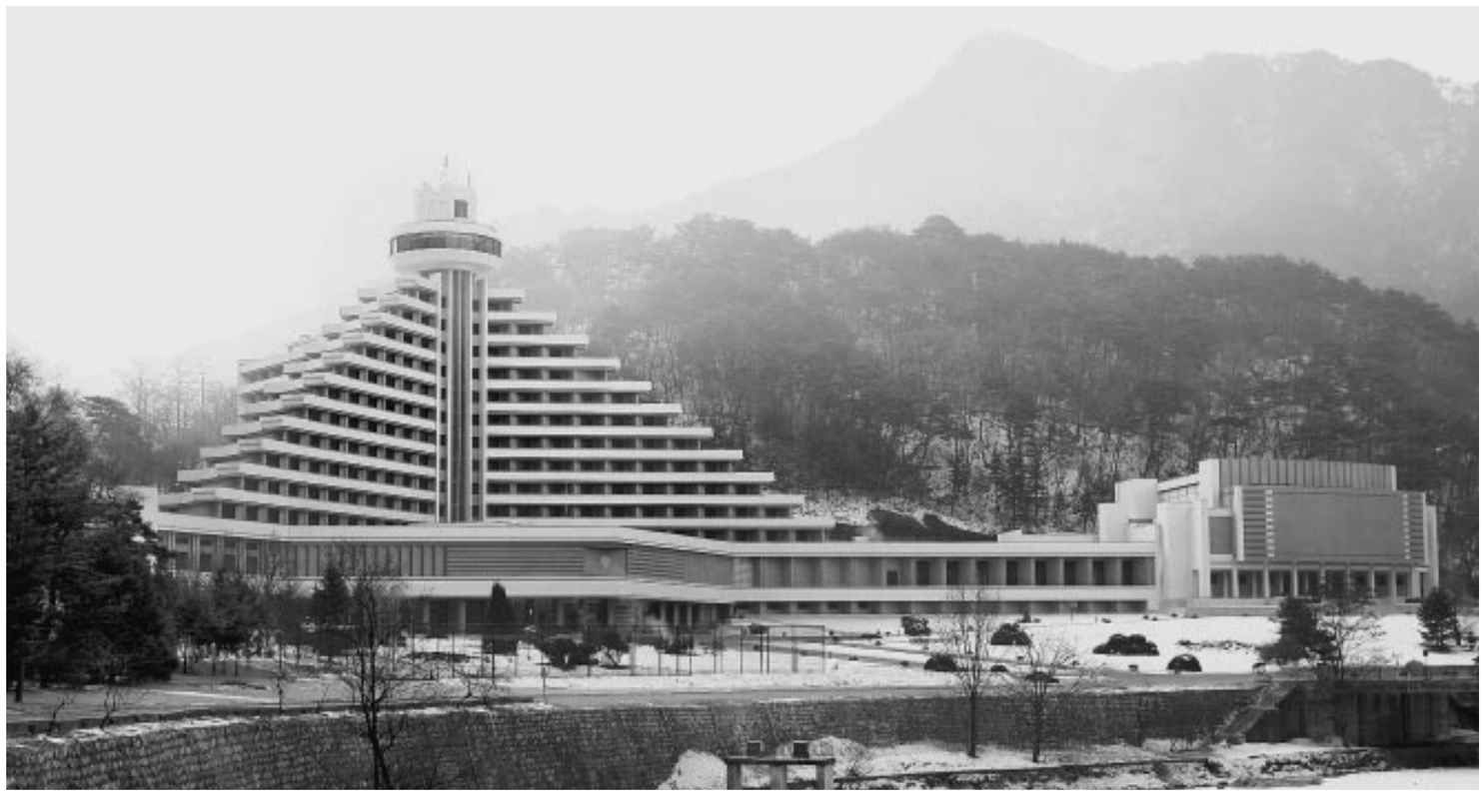
우리 당의 위대한 애민정치가 구현되여있는 사랑의 궁전 향산호텔은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천만년 길이 전하며 천하명승 묘향산과 더불어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개건된 향산호텔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영원하리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선물식물온실을 찾아서

맑고 푸른 하늘 가없이 펼쳐진 사회주의 내 조국땅에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이 다가오고있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온 세상에 더욱 소리높이 터치게 될 뜻깊은 2월이 눈앞에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며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여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따르는 만민의 절절한 흠모의 마음은 중앙식물원에도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열렬한 흠모심을 안고 세계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삼가 올린 수많은 선물식물들이 자라고있는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선물식물온실을 찾았다.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선물식물온실은 세개 온실로 나뉘여있었다.

첫번째 온실로 우리를 안내하며 중앙식물원 과장 김정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중앙식물원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이 삼가 올린 선물식물만도 수많이 자라고있습니다.》

온실안에서는 수많은 선물식물들이 푸른 잎새를 자랑하며 우리를 반겨주었다.

한쪽에서는 아시아의 열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종려과의 사철 푸른 키나무인 빈랑나무가 키를 솟구고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북아메리카지역이 원산지인 실잎종려가 푸르싱싱한 자기의 잎새를 기운차게 뻗치고있었다. 뿔스까의 벗들이 올린 독특한 덩굴모양을 이룬 층꽃샘덩굴이며 한 해외동포가 올린 아름다운 붉은색의 꽃싼잎을 펼친 성성목…

그 하나하나의 선물식물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 5대륙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끝없는 매혹과 열렬한 흠모심이 비껴있어 우리의 마음은 절로 뜨거워졌다.

온실을 돌아보면서 연방 감탄을 터뜨리던 우리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난 여러개의 화분들이 나타났다.

《이 화초들이 바로 주체99(2010)년 새해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이며 이름난 원예업자인 가모 모도데루선생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겨울베고니아품종들입니다.》

원예사 김인옥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붉은색, 진분홍색, 연분홍색, 노란색, 흰색, 감색을 비롯한 아름다운 색갈의 꽃송이들을 한가득 떠인 화초들을 보는 우리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적인 명화로 누리에 만발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더불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널리 알려진 가모 모도데루가 지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진귀한 선물식물들을 보내온데 이어 또다시 이렇듯 아름다운 겨울베고니아와 엽자화품종들을 보내여온 화폭이야말로 새 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 희세의 선군령장을 절절히 그리며 세기를 이어 끝없이 이어가는 세상사람들의 열렬한 칭송의 마음,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흠모의 정에 대한 뚜렷한 증시가 아니겠는가.

그 마음을 비껴안고 앞을 다투어 아름다운 꽃잎들을 펼친 여러 품종의 고온식물들도 매혹적이였다.

우리가 가슴에 차오르는 격정을 안고 두번째 온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그윽한 향기가 확 풍겨왔다.

김정옥동무가 중국에서 보내여온 선물식물인 꽃계수나무가 풍기는 향기라고 이야기하였다.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넓은잎나무인 꽃계수나무는 푸르싱싱한 잎과 질은 향기로 하여 온실과 방안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기 좋은 꽃나무이다. 특히 꽃에서 매우 센 향기가 풍기므로 방에 한그루만 있어도 그 향기가 꽉 들어찬다고 한다. 알고보니 이 꽃계수나무에는 수십년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여온 중국인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주체65(1976)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계림시의 한 시민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기 고장의 자랑중의 하나인 꽃계수나무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풍겨온다는 꽃계수나무의 향기, 정녕 그것은 자연의 향기가 아니였다.

세계 그 어디에서 살건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마음달리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존경과 칭송이 가꾸어 누리에 끊임없이 풍겨가는 뜨거운 심장의 열기, 따르는 마음이였다. 어찌 꽃계수나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며 온실에 장쾌하게 펼쳐진 진귀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식물들,

선물식물온실의 곳곳을 돌아볼수록 절세의 위인의 은혜로운 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되새겨졌다. 이 세상의 화초를 다 모아놓은듯 한 이 진귀한 재부를 우리 인민에게 통채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의 격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길이 전하기 위해 선물식물들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온 나라에 널리 퍼뜨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중앙식물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충정과 애국의 날과 달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슴뜨거웠다.

세번째 온실에서 우리는 외국의 벗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선물식물들중의 하나인 큰 꽃철쭉앞에서 멈추어섰다. 원예사 김준영동무가 이야기한것처럼 이제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아름다운 꽃들이 수많이 피여나게 된다는 큰꽃철쭉이였다.

머지않아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뜻깊게 장식하며 흠모의 꽃, 칭송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올릴 선물식물 큰꽃철쭉을 바라보며 우리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자주화된 새 세계를 심장으로 그려보는 온 세상 진보적인류의 한 마음을 소중히 안아보았다.

정녕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선군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와 인류자주위업실현의 환희로울 래일을 위하여 오늘도 멀고 험한 선군혁명강행군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며 언제나 푸름을 잃지 않는 선물식물들과 더불어 만민의 흠모의 마음은 끝없이, 끝없이 설레일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원산경제전문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격동적인 선군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정서,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친근한 길동무인 군중문화예술의 감화력은 크다.

원산경제전문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가장 벅차고 들끓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백봉덕, 박대근, 리건용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군중문화예술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학교안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가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매일아침 강의시작전에 있군하는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자료를 통한 교양사업과 새로 나온 노래보급은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하루사업의 첫시작부터 약동하는 투쟁의 열정에 넘쳐있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노래보급사업을 매일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주요기념일마다 진행하는 강좌별, 학급별노래경연을 특색있게 조직하였다.

누구나 시도 읊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를 다루는 모습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학생청년들의 가슴에 자기도 한번 무대에 올라 기량을 한껏 뽐내고싶은 마음의 충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단소를 불고 기타를 타며 서정에 잠겨 부르는 노래소리는 교직원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수령송가가 흠모의 정속에 높이 울리고 대고조로 들끓는 우리의 생활을 노래하는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가운데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모두가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손색없이 다루는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게 되였다.

학교에서는 이와 함께 학생청년기동선동대의 역할을 높이였다.

학교초급당위원회에서는 초급청년동맹비서 박옥주동무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 군사복무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제대군인학생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기동선동대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지난해 가을에 진행한 제12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1등의 영예를 쟁취한 학생청년기동선동대원들은 강원도안의 협동농장들과 시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 대한 경제선동을 기동성있게 진행하여 사람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거기에 담겨진 사상정신세계에 잠겨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던 나날에 학교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원산경제전문학교는 모든 학급이 《청년전위모범학급》, 《2중청년전위모범학급》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치고있다. 또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높은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유능한 기술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령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는것과 함께 갱, 직장들에서 혁명적인 노래들에 대한 보급과 해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어데서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 2갱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등에 대한 보급사업을 매일 입갱전시간을 리용하여 진행하고있으며 탄부들은 작업의 쉴참마다 혁명적인 노래들을 부르면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높이 울려가는 노래소리와 더불어 막장과 일터마다에서는 련일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세계5대문화에 속하는 대동강문화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발생한 고대문화이다. B.C. 30세기초 동방의 첫 국가로 세계적으로도 일찌기 형성된 고조선은 인류력사의 첫 시기부터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고대문명을 창조하여왔다.

발굴된 유적, 유물에 의하면 대동강류역은 원인, 고인, 신인 등 인류진화의 순차적단계를 거쳐오면서 농경문화를 위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청동기문화, 도기, 천문, 문자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문화발상지의 하나였다.

특히 대동강류역에 집중된 고인돌무덤과 돌판무덤, 큰 부락터유적, 옛성, 집자리 등은 평양이 고대문명의 발원지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리하여 주체87(1998)년초 평양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창조된 고대문화를 《대동강문화》로 명명하고 그것을 세계5대문화(조선의 《대동강문화》, 에짚트의 《닐강문화》, 서남아시아의 《량강문화》, 인디아의 《인다스강문화》, 중국의 《황하문화》)의 하나로 선포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대동강류역은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와 조선사람의 발원지로, 고대문명의 발상지,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민족의 성지로 되였다.

기와생산풍습

조선기와는 다른 지붕재료들에 비해 수명이 오래고 든든할뿐아니라 보기에도 좋은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살림집짓기에서 널리 리용되여왔다.

특히 함경도의 일부 지방들에서 지붕재료로 기와를 많이 리용하였는데 이 지방들에는 부모들이 시집장가를 가는 자식들에게 조선기와를 마련해주는 좋은 풍습이 있었다. 이 지방 인민들은 기와터에서뿐아니라 부엌아궁에 불을 지필 때마다 생기와를 한두장씩 넣어 구워냈는데 한해동안이면 집 한채에 이을 기와를 다 장만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방들에 가면 어느 집에 가나 기와를 쌓아놓은것을 볼수 있었다고 한다.

함경도의 일부 지방들에 다른 지방들에 비해 기와집이 많았고 개인집들에서까지 지붕에 씌울 기와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은것은 이 지방의 토질이 기와를 만들기에 적당해서 누구나 쉽게 기와자재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들의 근로정신과 호상협조의 정신이 강하고 살림집을 잘 꾸리는것이 하나의 생활범절로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 민족의 자랑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인민은 뛰여난 지혜와 재능으로 일찌기 훌륭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비파형단검, 금관, 귀걸이, 질그릇, 금속활자, 화약무기, 거북선, 가야금, 측우기, 훈민정음, 대동여지도, 첨성대, 황룡사9층탑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발명을 수많이 하였다.

비파형단검: 비파(악기의 일종) 모양의 청동단검이다. B.C. 4000년기 후반기에 청동기시대 문화가 발생, 발전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청동제련기술이 세계적으로 매우 앞선 자리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금속활자: 우리 인민이 세계에서 제일먼저 발명한것이다. 네데를란드에서는 1423년에, 도이췰란드에서는 1450년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는데 고려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그보다 수백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우리 민족의 자랑 빛나는 발명 몇가지

측우기: 리조시기인 15세기에 만들었다. 유럽최초의 측우기는 이딸리아에서 1639년에 만든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1441년에 쇠로 만든 측우기는 유럽최초의것보다 수백년 앞선것으로 된다.

고려청자: 비취옥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색갈과 특수하고 다양한 무늬 등으로 하여 우아하고 고상한 공예품으로 일찌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거북선: 16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갑선의 사용은 유럽에서보다 수백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첨성대: 7세기 전반기에 건설한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문대이다. 세계적으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천문기상관측유적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이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예술공연준비를 잘하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순결한 량심이 비낀 삶의 자욱

박천군 대령리의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

박천군 대령리에 살고있는 14명의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이 새겨가는 삶의 자욱자욱이 뜨겁다. 이들은 강성대국선포의 장엄한 승전고가 울려퍼질 그날을 앞당겨오시려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 한마음안고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며 인민군대원호사업도 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살며 일하려는 혁명적량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안고 새해 첫날 14명의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은 무릎을 마주하였다.

—포전을 《전선》으로 여기고 우리도 공격전을 벌리자.

전화의 나날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닌 리태근동무의 불같은 호소는 흥린복, 김왈순, 전기명동무를 비롯한 로당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인민생활문제를 푸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깨우에 실린 짐을 적으나마 덜어드릴 순결한 마음과 마음들은 하나로 합쳐졌다. 이 뜨거운 마음들이 맵짠 추위에도 방풍나래를 엮어 높이 쌓아올렸고 새끼꼬는기계의 가락맞는 소리가 그칠줄 모르게 했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자식들은 년로한 몸인데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만류하였으나 전쟁로병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살았다. 때없이 비가 내려 벼단운반이 늦어지고있던 가을 백락기, 전원련동무를 비롯한 로당원들은 지게를 지고 포전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의 뒤를 심익도, 김봉선, 박춘세, 김영섭동무를 비롯한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이 따라나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걸음걸음 따르고싶다고 절절히 말하며 벼단들을 듬뿍 지고 탈곡장으로 향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고 벼단운반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얼마전 량만혁, 리현국, 김룡일, 김광혁동무를 비롯한 로당원들과 전쟁로병, 공로자들은 지난 한해동안 자신들의 성실한 땀으로 마련한 많은 량의 원호물자를 최전연초소의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들이 마련한 원호물자에는 선군시대 전쟁로병으로, 공로자로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사랑과 은덕에 순결한 량심과 끝없는 헌신으로 보답하려는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뜨겁게 비껴있다.

오늘도 이들은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자기들이 《전선》으로 정한 포전에 삶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한 영 식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데바브라따 비스와스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25일 림회성 인디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전인디아진보전선은 반제투쟁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련대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키려는것은 전인디아진보전선의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이 올해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을 총적인 투쟁방향으로 내세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우리는 이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본사기자

기동성있는 예술선동활동으로

피현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기동적인 예술선동활동으로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이들은 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는 한편 주별, 월별로 예술선동활동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군내 지방산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 자주 나가 생산자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예술선동활동을 전투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전투장마다에서 생동한 현실자료를 결부하여 진행하는 이들의 공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로농통신원 백 광 수

전통적인 민족음식의 료리원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의 민족적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기의 체질과 구미에 맞는 료리들을 만들어먹었으며 그 과정에 식생활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왔다. 리조시기에 편찬된 《규합총서》, 《시의방》, 《음식지미방》 등에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료리원리들이 기록되여있다.

첫째는 동물성재료와 식물성재료를 적당히 배합하는 료리원리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부식물의 대부분은 집짐승이나 산짐승, 물고기와 같은 동물성재료와 남새, 산나물, 바다나물등 식물성재료의 적절한 배합으로 조리된것들이다.

이렇게 조리된 료리들은 감칠맛이 있고 소화도 잘되여 건강과 장수에 좋은 민족음식으로 전해내려왔다.

둘째는 다섯가지 맛을 서로 조화시켜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료리원리이다.

신맛, 매운맛, 쓴맛, 단맛, 짠맛을 가리켜 《5미》라고 한다. 짠맛과 신맛, 신맛과 쓴맛, 쓴맛과 단맛, 단맛과 매운맛, 매운맛과 짠맛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보충하면서 조선료리의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료리원리이다.

김치는 신맛과 짠맛이 조화되여 류별난 맛을 낸다. 고추장은 매운맛과 단맛이 배합되여 특유한 맛을 내며 젓갈, 식혜같은것은 매운맛과 짠맛이 서로 배합되여 고유한 맛을 낸다.

셋째는 다섯가지 맛이 서로 억제하는 성질을 리용하여 고유한 맛을 내게 하는 료리원리이다.

쓴맛은 매운맛에, 매운맛은 신맛에 의하여 억제된다. 그리고 신맛은 쓴맛에 억제되여 맞춤한 음식맛이 얻어진다.

우리 인민들은 이러한 원리를 잘 리용하여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만들어먹었다.

넷째는 류사한것을 가지고 류사한것을 보충하는 료리원리이다.

사람의 해당 장기의 쇠약을 그에 맞게 짐승들의 장기로 보충하면 해당한 장기의 쇠약을 막으며 장수할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가 쇠약해졌을 때에는 짐승의 골수를 먹었고 폐, 심장, 간 등을 튼튼히 하기 위해 짐승의 허파, 염통, 간 등으로 료리를 만들어먹었다.

다섯째로 건강에 유익하게 하는 료리원리이다.

아무리 좋은 맛을 내는 재료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쓰지 말아야 장기를 보호하고 건강을 도모하는데 유익하다. 지나친 쓴맛은 심장에, 매운맛은 폐에, 단맛은 취장에, 짠맛은 콩팥에, 신맛은 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료리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선조들은 조미료를 적당히 배합하여 료리를 만들어먹었다.

이러한 료리원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지혜와 재능의 산물로서 민족음식의 전통으로 오늘도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대상과 경우에 따르는 인사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이며 전통입니다.》

인사례절은 사람들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규범의 하나로서 사람의 품격과 도덕품성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수 있다. 인사례절을 잘 지켜야 사람들사이에 동지적사랑을 더 활짝 꽃피우고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나갈수 있다.

인사례절을 잘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상에 맞게 인사를 우리 식으로 바로 하는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인사례법들이 있지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우리 인민의 인사법처럼 문화적이며 위생적으로도 흠잡을데 없을뿐아니라 대상에 따르는 례의표시가 충분하고도 명백한 례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식 인사법에서는 대상에 따라 자기보다 나이나 직급이 우인 웃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담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를 하고 같은 나이의 사람들사이에는 허리를 절반가까이 굽혀 인사를 한다. 뿐만아니라 아래사람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여 답례를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한다.

인사례절을 지키는데서 경우에 따르는 인사말을 잘 골라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인사말을 바로 하여야 사람들사이에 오고가는 정이 더 뜨거워지게 된다.

실례로 전화를 끊을 때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것은 격에 맞지 않으며 례절이 없는 표현으로 된다. 이때에는 《그럼 전화를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는것이 격에 맞으면서도 례절있는 인사말로 된다.

가깝고 허물이 없는 사이에도 지나친 롱담이나 반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뜻이 위하는 마음으로 친근한 인사말을 주고받고 불상사가 생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정말 안됐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라는 위로의 인사말을 해주며 병문안을 간 경우에는 환자가 신심을 가지고 병치료를 잘할수 있도록 《직장일은 걱정말고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전번에 왔을 때보다 많이 나아진것 같습니다.》라는 인사말로 고무격려해주는것과 같이 고상한 도덕적풍모와 례의를 나타내는 인사말들이 풍부하고 다양한것은 우리 인민의 긍지이며 자랑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우수한 인사례절은 민족성을 활짝 꽃피우고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 승 길

리용가치가 큰 낙지가공부산물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낙지가공부산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낙지를 가공할 때 내장, 먹물, 정소, 껍질 등의 부산물이 몸질량의 30%정도 나온다고 한다.

낙지가공부산물리용에서는 우선 내장을 자가분해시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있다. 낙지내장은 몸질량의 13~20%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B군, 아연 등 10여종의 미량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쉽게 자가분해시킬수 있는 낙지내장을 여러가지로 가공하여 식용기름이나 건강식료품원료, 간장 등을 만들수 있다. 이때 내장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간에서 카드미움을 제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낙지먹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몸질량의 1.3~2%를 차지하는 낙지먹물에는 단백질과 지방, 아연을 비롯한 10여종의 미량원소들과 멜라닌 등이 들어있으며 항종양활성이 강한것으로 알려져있는 오징어먹물과 그 조성이 류사하다고 한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는 국수, 빵, 과자, 물고기떡생산과 식료품의 천연색소, 자외선방지화장품, 건강식료품원료로 낙지먹물을 리용하고있다.

한편 낙지정소와 껍질도 회수하여 리용하고있다. 몸질량의 3~7%를 차지하고있는 정소조직에는 식료품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혈압낮춤, 종양억제작용을 하는 프로타민이 들어있으며 껍질은 콜라겐생산의 좋은 원료로 쓸수 있다.

이외에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는 말린 낙지간이나 간가루를 생산하여 건강식료품원료로 리용하고있으며 낙지간에서 항로화식료품생산에 중요하게 쓰이는 핵산을 추출하거나 연골로부터 키토산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여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을 보면서 사회주의 좌절의 역풍이 몰아치던 엄혹한 시기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그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뛰여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고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세계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졌던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놓고 《사회주의의 종말》이니, 《자유세계의 도래》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반사회주의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당시 서방세계에서는 《사회주의의 위기》설이 나돌고있었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었다.

세계의 이목은 우리 나라에 집중되였다.

—동유럽사회주의는 왜 좌절되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는 어떤 요인으로 하여 승승장구하고있는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나라 당 및 국가활동가들을 만나시여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문제와 사회주의운동의 재건, 발전과 관련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80(1991)년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를 동경하던 이 당에 있어서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사태와 관련하여 옳바른 견해를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로부터 이 당대표단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몸소 접견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미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평화적이행》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고, 또 동유럽나라들이 자주성이 없이 혁명을 하다나니 다 망하고말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간단명료한 말씀으로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의 대내외적 요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확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대표단성원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의 원리에 기초하시여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원인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유럽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때 쏘련군대가 쭉 밀고나오니까 우리가 나갈 길은 사회주의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그 나라들은 남이 하는대로 따라하였다, 동부도이췰란드의 울브리히트는 모스크바에서 비가 내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다니면 베를린에 해가 나도 우산을 쓰고다닌다고 하였다고 하시며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이 네가지 구호를 들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면서 대표단성원들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동시에 사회주의의 생명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미국사람들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다 녹여냈으니 이제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녹여내려고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도 《다당제》를 실시하게 하여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처럼 망하게 만들자고 하고있다, 《다당제》는 다시 식민지화하자는것이다, 《다당제》를 실시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실제상은 《다당제》를 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형식에 불과하다, 미국의 주인은 미국자본가들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천만번 지당한것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세계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시였다.

세계 수많은 각계각층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혁명과 사회발전의 진리를 받아안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사회주의의 운명문제와 관련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본의 정치활동가 구노 쥬지도 그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한때 일본내각 우정상까지 한 자민당 계렬의 오랜 정계인물이다. 그는 1970년대초 우리 나라를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일조우호를 위해 활약하였다.

우리 나라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생활력을 체험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랜 기간의 투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그리고 민족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시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정치가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이러한 그였기에 서방세계에서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고견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은 더욱 간절하여졌다. 그의 소망은 드디여 성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8(1989)년 12월 어느날 구노 쥬지일행을 접견해주시였다.

구노 쥬지일행의 심중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관료주의를 없애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관료주의가 있어도 일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나라에서는 관료주의가 있어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할수 있으며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수 있기때문이다, 관료주의는 주관주의에서 나온다, 사회주의경리는 집단경리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나라에서는 관료주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천반만 처다보면서 경제를 잘 관리운영하지 않는다, 주관주의를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다, 관료주의를 없애려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노래도 있다, 해방운동을 하자면 천만리를 걸어야 한다, 복구건설을 하자고 하여도 천만리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공장에도 계속 나가보아야 한다, 그래야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앨수 있다, 주관주의와 관료주의가 없으면 사회주의는 발전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구노 쥬지일행은 깊이 새기였다. 관료주의와 결부하여 사회주의의 운명문제를 심오히 분석하고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그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는 독약과 같다, 관료주의를 부리면 독약을 먹는것이나 다름없지만 인민대중속에 들어가면 보약을 먹는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독약과 보약, 인간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평범하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치리론문제를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구노 쥬지일행은 그제서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원인과 조선의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불패성의 원천에 대해서 명확히 리해할수 있었다. 그들은 이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으며 전도가 밝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사람중심의 정치를 하기때문에 관료주의가 없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자기의 사상과 전통, 력사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특색있는 사회주의이다.》

이것은 구노 쥬지가 귀국도중 증국의 베이징에 들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일가견이였다.

후날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는 지난 18년동안에 김일성주석을 여러차례 만나뵈온 영광을 지니였다. 그때마다 불굴의 투사로서의 강철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치신 주석의 선견지명에 감동을 금치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이를 만나뵈옵고 강하게 받은 인상은 숭고한 인간애와 은정깊은 사랑이 넘치는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이였다. 나는 주석의 안팎에서 여유작작하고 자신만만하신 모습을 직감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때 정치가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공화국이 륭성번영의 한길로 전진하는데서 느끼시는 주석의 만족이 그러한 사랑의 눈빛을 낳은것이 아닐가고 생각한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기에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을 따라배우며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조 성 철

여러 나라 인사들이 격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인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해하였다.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단장 가마꾸라 다까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계신다.

조선인민은 그이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국은 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있기에 조선은 미국의 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김정일총비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을 빛내이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웰남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웬티 타잉 화는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보다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그들은 실천을 통해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독창적인 정치방식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그들은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말레이시아전국은행로조대표단 단장 싼다그란 쏠로몬 죠세프 피챠이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에 조선은 오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고 확신한다.

민주꽁고외무성 새해공동사설을 지지

꽁고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이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를 지지하여 20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서를 보내여왔다.

각서에는 공동사설에 천명된대로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한다고 지적되여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계속 보도하고있다.

중국의 《인민일보》 25일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국방부 장관이라는자가 필요할 때에는 북을 《선제타격》할것이라고 폭언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을 갈가와하지 않는 괴뢰당국의 의사를 드러내놓았으며 조선반도에 또다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고 밝힌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선인민군은 남조선당국의 《선제타격》론을 조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남조선당국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서도 조선인민군은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군사적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 송두리채 들어낼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나라의 중앙TV방송, 《신화매일전신》, 《광명일보》, 《중국청년보》, 《베이징일보》, 인터네트홈페지 《동북망》,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인도네시아의 안따라통신, 신문들인 《꼼빠스》, 《메디아 인도네시아》, 웰남 TV방송, 신문들인 《넌전》, 《꿘도이 넌전》, 이란신문 《이란뉴스》, 체스꼬의 체떼까통신,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 벌가리아의 포쿠스통신, 까타르의 《알 자제라》위성TV방송,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적도기네통신,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 《아사히신붕》도 24일과 25일 《조선 남조선에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경고》 등의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대통령으로 재선

스리랑카에서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1월 26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지역적통합을 이룩할것을 호소

케니아대통령 므와이 키바키가 25일 한 외교석상에서 지역적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지역나라들에 호소하였다.

그는 동아프리카공동시장창설에 관한 협정이 올해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케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경제적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통합은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방도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지역나라들이 동아프리카공동체를 대륙의 주요경제협조기구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렬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 규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21일 한 외교석상에서 렬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렬강들이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굴욕을 강요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이란은 그러한 책동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본사기자

인디아에서 공화국의 날 기념

인디아에서 26일 공화국의 날을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에서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대통령 프라티바 데비싱 파틸이 각계층 군중과 함께 열병식을 보았다. 열병식에서는 군인들의 행진이 있었으며 전투기들이 상공을 날아갔다.

본사기자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웰남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의 반영이였다.

웰남은 동남아시아나라로서 새 사회건설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돌이켜보면 웰남인민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데 이어 반동정권을 타도하고 새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그후 웰남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1976년 7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지난 기간 웰남에서는 여러차례의 경제계획이 수행됨으로써 나라의 면모가 일신되고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웰남은 세계적인 흰쌀수출국가로 알려져있다. 아시아대륙의 남부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는 웰남은 토지가 비옥하여 《세계의 쌀창고》로 불리우고있다. 웰남은 하노이 중심부와 국제비행장 노이 바이를 련결할 《남북고속철도》의 시험선부설을 2012년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있다.

사회생활이 날로 발전하고 인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고있다.

웰남은 동남아시아를 평화, 안정과 개발지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오늘 웰남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호지명주석의 뜻을 이어 사회주의를 계속 전진시키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라 명 성

대륙의 통합과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제1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수뇌자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정보 및 통신기술발전 문제를 기본의제로 제기하고 그 해결방도와 개발전망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주목하고있는 국제사회계는 이번 수뇌자회의에서도 좋은 결실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발굽밑에 짓밟혀 《암흑의 대륙》, 《수난의 땅》으로 불리웠던 아프리카대륙이 자주와 독립,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수억만인민들의 꾸준한 투쟁에 의해 나날이 변모되여가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자체의 힘으로 대륙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립장과 리익을 대변하는 아프리카동맹의 활동은 대륙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이며 대륙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도 바로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대륙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2002년 7월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진행된 제1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를 계기로 정식 발족되여 대륙인민들의 념원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여온 아프리카동맹은 현재 50여개 나라를 망라하고있는 대륙적인 기구로서 아프리카의 통합과 발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자기의 역할을 높이고있다.

지난해까지 총 13차에 걸쳐 진행된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들에서는 대륙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하부구조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동맹기구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광범위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오늘 아프리카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전망이 좋다.

무엇보다도 단합된 힘으로 세계적인 도전들에 맞서나가려는 아프리카인민들의 공통된 념원과 의사에 의해 대륙의 정치적통합과정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2009년 7월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진행된 제13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동맹위원회를 아프리카동맹당국으로 개편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아프리카동맹당국 창설목적은 아프리카동맹안의 현존정부구조를 개혁, 개선하고 대륙의 정치적 및 경제적통합을 다그치는데 있다. 대통령과 부대통령, 12명의 비서들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될 아프리카동맹당국의 수립은 모든 성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씨르트회의후 아프리카동맹은 아프리카동맹당국창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세네갈에서 아프리카동맹당국창설에 관한 아프리카지식인들의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 연설한 세네갈대통령과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아프리카사람들의 념원은 통일되고 강력한 아프리카를 보는것이라고 하면서 대륙의 정치적통합을 이룩하는데서 아프리카지식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풍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은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경제규모에서 아프리카대륙이 차지하는 몫이 계속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현시기 아프리카나라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여러 분야를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뚜니지정부는 정보산업을 중요부문으로 내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정보통신하부구조를 확대하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전국각지에 수백개의 정보통신기술봉사쎈터들이 꾸려졌으며 정보산업부문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근 10%에 이르고있다.

케니아정부도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전문학교를 내오고 운영하고있다. 이 학교에서는 정보기술인재양성과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기술보급사업도 진행하고있다. 또한 민족어인 스와힐리어로 된 프로그람개발을 추진하고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우주연구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1999년에 첫 위성을 발사한데 이어 통신 및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두번째 위성을 쏴올리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정보통신 및 우주분야에서 지역적인 협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올해에 대륙나라들의 정보통신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10개의 아프리카나라들을 련결하는 해저까벨부설공사가 완공되게 된다.

지난해 9월 리비아에서는 아프리카인공지구위성 《까프1》호 중앙조종실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온 10여명의 우수한 우주부문 기술자들이 일하는 이곳 조종실에서는 2007년에 발사된 아프리카인공지구위성 《까프1》호에 대한 조종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은 결실을 맺으며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아프리카동맹을 중심으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대륙의 통합과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며 아프리카대륙이 날로 변화발전하기를 기대하고있다.

단합된 힘으로 대륙의 번영발전을 설계하고 실현해나가는 아프리카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하여 아프리카의 미래는 나날이 밝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서 남 일

정치적모순이 심화되는 복잡한 정국

최근시기 우크라이나에서는 여러 정치세력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심화되여 정국이 뒤흔들리고있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선거전이 벌어지고있다. 기본경쟁대상은 현 대통령 유쉔꼬와 수상 찌모쉔꼬, 지역당지도자 야누꼬비치, 은행가 찌그꼬이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맹렬히 들이대고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렬한것은 현 대통령과 수상사이의 공방전이다.

현 대통령 유쉔꼬는 수상 찌모쉔꼬를 주요과녁으로 삼고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있다. 그는 얼마전에도 어느 한 주의 선거자들앞에서 찌모쉔꼬와 정부의 활동이 《매일매일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집씨무리의 생활》이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찌모쉔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라일에 신경을 쓰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달 혹은 두달후에 어디에 가있을것인가를 모색하는 배우라느니, 그가 이끄는 뿔럭이 《종파》라느니 뭐니 하면서 찌모쉔꼬를 공격하였다. 그는 찌모쉔꼬에게 정계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찌모쉔꼬는 자기대로 유쉔꼬에 대한 비난전을 펴고있다. 오히려 그는 유쉔꼬가 하나 하면 둘 하는 식의 역공세를 들이대고있다. 그는 지금 나라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관료화와 부정부패행위라고 하면서 유쉔꼬세력을 몰아대고있다.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헌법수정을 주장하고있다.

이미전부터 현 대통령 유쉔꼬는 자기가 제출한 새 헌법수정안이 최고라다(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산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으름장을 놓았다. 찌모쉔꼬도 헌법을 수정하여 대통령권한을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으며 야누꼬비치 역시 현행헌법을 수정하며 최고라다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최고라다를 해산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최고라다는 이에 반발해나서면서 그러한 행동을 《범죄》로 락인하고 최고라다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17일 대통령선거 1차투표가 진행되였다. 선거자의 약 70%가 참가한 투표에서는 지역당지도자 야누꼬비치가 제일 앞섰으며 그다음은 현 수상 찌모쉔꼬, 세번째 자리는 찌깁꼬가 차지하였다. 현 대통령 유쉔꼬는 다섯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를 놓고 뒤자리를 차지한 대통령후보들이 투표를 걸고들었다. 그들은 투표가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느니, 투표과정에 위법행위들이 많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투표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는 소리들을 내돌리고있다.

1차투표에서 대통령후보들중 누구도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지 못하여 2월 7일에 2차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진행되게 될 2차투표에서도 지역당지도자 야누꼬비치가 확고한 우세를 차지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들은 현 대통령 유쉔꼬는 2차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고있다. 그들이 이렇게 보는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선거자들이 《색갈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권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기때문이라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몇해전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의 각본과 간섭에 의해 《오렌지혁명》이 일어났다. 현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은 《오렌지혁명》에 의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았다. 그들은 집권초기부터 우크라이나가 친미, 친서방정책을 실시하고 나토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세력권확장정책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나라에는 불안정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공업생산이 하강선을 그었으며 사람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령락되였다.

국내문제처리에서 여러 정치세력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여 마찰이 계속되였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의 리익에만 눈이 어두워 국회에서까지 란투를 벌리는 희비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지어 《오렌지혁명》에 같이 참가한 대통령과 수상사이에도 서로 제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매일과 같이 충돌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대외적으로 믿음성이 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나라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모든것이 《색갈혁명》의 《덕》이다.

얼마전 뿔스까신문 《젠니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통령선거결과가 어떻든지간에 한가지 결론을 내릴수 있는것은 《오렌지혁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는것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결국 《색갈혁명》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감정이 이번 대통령선거 1차투표에서 그대로 표현되였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서방세력이 지지률이 매우 낮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쉔꼬정권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것이다. 즉 서방세력이 끌이 보이지 않는 정치경제적위기를 타개하지 못하고있는 무능력한 유쉔꼬정권에 대한 지지가 저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판단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하기는 여느때같으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선거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법석 떠들었을 서방세력이 소란을 피우지 않고있는것을 보면 그럴듯 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상 그들은 유쉔꼬를 완전히 제껴놓았다. 그들은 앞으로 서게 될 우크라이나정권이 어떤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있다. 서방세력은 초조감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전망이 있어보이는 야누꼬비치의 정치적동향을 지켜보고있다. 지난시기 야누꼬비치는 로씨야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나라가 지나치게 친미, 친서방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을 경계하고 이런 동향을 가진 인물들을 정권의 요직에 앉히는것을 완강히 반대해왔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불안하게 만들고있다. 이런 실정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대통령선거 2차투표과정에 서방세력의 불순한 개입이 있을수 있다는것이 여러 분석가들의 견해이다.

그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장악을 노린 정치세력들간의 대립의 격화로 정치정세가 더 복잡해질수 있다고 하고있다. 그러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수상, 정부와 최고라다 등 정치세력들과 권력기관사이의 대립과 갈등, 사회적혼란이 심화되고있다. 수도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와 지방들에서는 대립되는 정치세력들의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이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정치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학 남

ㄱ-01018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